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무의 세계 신발 한짝 마저 찾아야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그 세월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습니다.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도 되고 오래됐다고 해도 됩니다. 이 세월 아닌 세월이 이렇게 가도록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또 똑같이 차원이 높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가 하는 소임에 따라서 모든 걸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돼야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또 세상도 좋아질테고, 자신들도 대대손손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목은 밧을 갖는다면 여러 가지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공덕을 쌓으실 겁니다.

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공부죠. 부처님께서 "이 마음을 너부터 깨달아라"라고 하신 그 말씀과 더불어 사대 성인들이 모두 "너부터 알고 너부터 믿어서 너를 깨달으면,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풀이 아남을 알고 그래서 하나로 돌아가는 이 우주의 섭리도 다 알 수 있으며, 결국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마저도 공해서 없는 줄을 알 수 있느니라. 그것을 알면 그대로 어떠한 줄을 알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생활이 전부 공부 아님이 없는데 나는 중생이 돼서 모자란다. 무슨 업이 많고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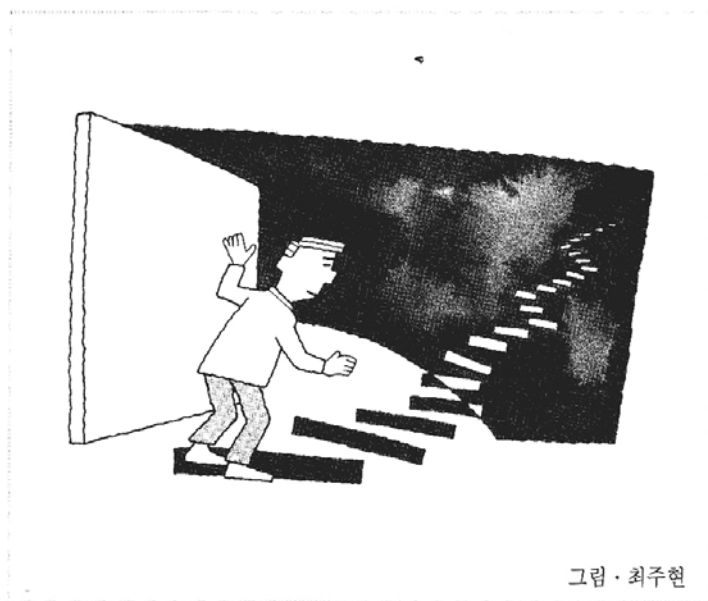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면, 바로 마음 도리에서 스스로 약사가 돼 줍니다. 반야줄을 쥐고 죽 말하지만, 내 주인공 그 자리를, 뿌리를 쥐고서 '너만 할 수 있어!' 할 때에 순간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듯이 바로 약사로 화한단 말입니다. 화해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는데, 왜 못 믿고 바깥으로 그렇게 떠돌리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약사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안되는 일이 있거나 그러다면 '바로 너만이 이끌어줄 수 있지 않아' 할 때에 관세음이라 되어 줍니다. 가정에서도 할나 할나 누가 이렇게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말도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형님' 하면 형님이 되고, '아우야' 하면 아우가 되고, '자네 있나' 하면 사위가 되고, 이렇게 잘나잘나 그냥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이겁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보배는 자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다운 부부간이나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대신 해 줄 수 없는 게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데 큰 것은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큰 거나 조그만 거나 풀이 아니에요. 가고 올이 없이 가고 올 때에, 만약에 천리를 간다 하더라도 요 문 바깥에 나가는 거리와 같습니다. 우주를 한 바퀴 돌았다 하더라도 요 문 바깥에 가는 거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이름을 가진 분만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권리를 가졌습니다. 부처님이라는 이름의 권리를 다 같이 가졌단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깨우친다 하더라도 일불(一佛)이지, 두개의 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마음의 뿌리도 똑같고 다 평등하기 때문이죠. 단지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 권리를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을 모든 걸 버려서 자기까지도 다 버려서, 다 일었어.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분한테 어떠한 것든지, 어떠한 것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애든지, 어른이든지, 응신으로서 나투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아님이 하나도 없게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게 되면 삼천 년 전의 부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풀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그마한 일은 어떻게 체휼을 하고 가겠는데 크게 벌어지는 일들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먼저 이렇게 큰 것은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그냥 믿어 보셨으면 좋으련만,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배워서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아리송한 거예요. 따지느라고요. "내가 이걸 그대로 믿어야 하나? 이거 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뚱이의 한 개체에 생명들이 주둔해서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라고 내세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안다고 하니 그게 통신이 되겠습니까. 겉으로 아는게 많고 말로는 안하지만 그러나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르든지 알든지 무조건, 아는 것은 감사하게 거기 놓고, 모르는 것은 '너만이 이끌어갈 수 있고, 너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고, 너만이 내 몸을 형성시켜서 끌고 다니니까 건강하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십시오. 이것은 기도가 생김니다! 우주와 직결되는 통신입니다. 지금 전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전부 기복으로 믿고 있어요.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전부 말이예요. 자기는 썩 배놓고 극장표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못났든 잘났든 나로부터 상

**"물이 흘러갈때 바람 불어 못간다
구정물 들어와 못 간다는 것
보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여하게 흐르듯 마음도..."**

여러분이 요만한 그릇을 가져왔다 하면, 나도 요만한 그릇이 되고 여러분이 바다를 가져왔다면 나도 역시 바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들도 모르고 먹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직선적으로 관하라는 것 밖에는 말을 할 수 없겠지요. 그게 제일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는 지금 시대의 용어로 쓴다면 바로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어떻게 해서냐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력이 없다면, 앞으로는 데 거기에서 데 입력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의 입력이 없으면 새로 입력하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차지도 않고 비지도 않습니다.

하는 생각까지도 있어서는 아니되죠. 물이 흘러갈 때 나는 바람이 불어서 못 흘러간다. 파도가 쳐서 못 흘러간다. 구정물이 들어와서 못 흘러간다고 말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어떤게 들어와도 흡수해서 가라앉으면서 여여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체가 없어서 가깝고 멀고 없이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들을 수 있고, 전체를 알 수가 있고, 전체가 어디서 온 줄을 알 수 있고, 가고 올이 없이 가고 올 수 있습니다. 오신통도 도가 아니지만, 비록 오신통이 열렸다 해도 내 몸에서부터 벗어나야 누진으로서 자유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공부를 그렇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생활이 부처님의 법이고 부처님 법이 우리 생활인 것이지, 못났든 잘났든 우리 생활이 없으면 우리들이 없어요. 부처님 법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예요.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삼세를 초월함이 있고, 우주가 있고, 천차만별의 만물이 있고, 끝없이 흘러드는 이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내 마음을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못 사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 육통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것이

**"내안에 있는 보배 쥐고 공부 익혀야지요"
"아는게 너무 많아 따지느라 아리송 하죠"**

바로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에, 한 치도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누적이 돼서, 즉 집착이 누적되고, 욕심이 누적되고, 모두 바깥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보고, 내가 해오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한타리로 질질발리로 걸게 되고 애구눈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의 세계에 신발 한 짝을 두고 나머지 한 짝만 신고 나왔어요. 그 신발 한 짝을 마저 신을 줄 알아야,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같이 스스로 용무를 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즉 평등공법을 그대로 여여하게 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해 드려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일거수 일투족 뿌리와 싸이 같이 붙어 있는데, 내가 믿느냐 안믿느냐 이런 말도 붙지 않습니다. 종자를 심으면 뿌리로 화하고 그 뿌리로 안에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싸움 바로 세 뿌리를 믿어야 싸과 뿌리와 상

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시 말하면, 과거에 살던 나와 현재에 사는 내가 상봉을 해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듯이 지금 그 싸이 뿌리에서만 내가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의심을 갖기보다는 진정으로 믿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옛날처럼 내 싸이 어디 있는지 뿌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머리가 깨이고, 물리를 알고, 또 과학이 어떤 건지 이론으로라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방에서도 보고 있는데, 어째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게 뭐?' 하고서 십 년을, 백 년을 있어봐도 깨서 먹어보지 못한다면 맛도 모르고, 종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루어질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고 거기다가 다 맡겨라!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라!'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몸이 아프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깨닫는 것, 밥 먹는 것, 자는 것, 통누는 것, 아픈 것, 죽는 것 이 여섯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누가 대신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좋은 보배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니 주인공 자리에서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정말이지 진짜로 믿고 입력할 때 바로 통신이 된단 얘기입니다. 통신이 되면 대뇌를 거쳐 중뇌에서 책장을 내려 사대로 통신이 되면 이 안의 중생들이 다 작용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용을 할 때 이것을 다 한 마음으로 돌릴 수 있어야 내가 안에서 조복을 받았고, 바깥에서도 조복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거수 일투족 내 안에 있는 하나의 보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익혀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기면 화해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 돼서 바깥으로 떠돌리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조그마한 건 되는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흐름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76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이 제 느낌을 지켜보면서.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기뻐하는 자기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거기에 울고 웃을 것이 진정으로 있는가. 울고 웃는 자신이 실제로서 있는지를 자세히 자세히 관해 보라.
누가 울고 누가 웃는가? 그렇게 하는 근본은 누구인가를 지켜보라.
'자기'라는 욕심을 세우지 않고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이 지켜보라. 어째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가...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똑바로 지켜보라.
지켜볼 때 망상이 든다해도 그것까지 지켜보라. 평등한 마음 텅 빈 마음으로 비춰보고 지켜보라.
그러다 보면 습도 녹고 인과도 무너지며 나를 발견하게도 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동안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또는 소유하거나 누리기 위해서 밤 낮을 가리지 않으며 힘을 쏟고 정성을 기울인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따지고 보면 모두 즐거움을 얻자는 데 있다.

즐거움이 곧 삶의 목적이요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좀 더 크고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고 말한다.
그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즐거움에 목말라하고 집착하며 즐거움을 의지, 욕구, 소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삶에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은 듯하다. 항상 즐겁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일가.
부처님께서는 세속적인 즐거움 대신에 출세간적인 즐거움을 역설하셨다. 세속적인 즐거움이란 무상(無常)한 것이며 조건지어진 것일 뿐이므로 그것은 결국 괴로움으로 통한다고 하셨다. 그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며 사라짐은 곧 괴로움을 낳기 때문이라 하셨다.
고로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한 항상 즐거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상한 것인 줄 알고, 다만 조건지어진 것임을 알아채린다면 거기에 더 큰 즐거움이 따른다고 하셨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하는 식으로 즐거움이나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면 괴롭다.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것이기에 어떤 즐거움이라도 그것은 곧 괴로움에 자리를 내주고 만다.
기쁨이 떨어지면 등잔불이 꺼지듯이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감정은 더욱 커진다. 즐거웠던 감정, 즐거웠던 기억들이 전보다 더 크고 강한 목마름을 낳고 그것이 커진만큼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괴로움도 커진다. 하지만 즐거움·행복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무엇보다도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며 괴로움이 사라지면 저절로 평온한 즐거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마음은 평화스러워 질 것이며 갈등도 해소될 것이다.

'나'가 빠지면 된다. 즐겁다는 생각, 즐겁다는 느낌이 내 것이다 혹은 내 속에서 나온다고 그것을 나와 같이 보지 말고 다만 지켜보면 된다. 생각이나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채고 생각이나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알아채기만 하면 된다. 마치 거울에 비

춰보듯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지속되는 것을 지켜보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 된다.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즐겁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만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지켜보기만 하라. 괴로운 느낌도 마찬가지로이다. 싫다 좋다는 감정도 똑같이 지켜보라.
그러다보면 즐거움을 붙들고 괴로움을 피하려는 성향이 점차 스러져감을 알게 될 것이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결국은 무상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집착할 대상이 못된다는 것을 알아채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는 붙잡지 않고 더는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누가 무상한 것을 좇겠는가. 절로 놓아지게 될 것이다.
마음엔 평화가 깃들고 평화스런 마음에 즐거움이 함께 한다.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닌,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진짜 즐거움이 따른다.

협찬 : 김영환